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5년도 제10호

학교체육에 진심인 그의 출현이 반갑지만... 우려되는 지점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체육행정' 성공가로 기억되려면

이병호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선수과 지도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것

대한체육회, “선수·지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 앞장서겠다”

김성진 한스경제 기자

수많은 사업장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

법원, “프로축구 유소년 축구팀 감독·코치도 노동자...퇴직금, 연차수당 지급해야”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

올림픽 메달 7개 짐바브웨 ‘수영 영웅’

‘스포츠계 파워1’ 최초 여성 IOC 위원장, 코번트리누는 누구?

이영경 경향신문 기자

포틀랜드 고등학교생 리그 챔피언십

여자 육상 경기서 10초 차이로 압도적 1등한 트랜스젠더... 男 성기에 수영까지

이다연 인사이드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체육행정' 성공가로 기억되려면

새로 선출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2월 28일, 본격적인 임기에 들어갔다. 스포츠 관련 뉴스에서 연일 유 회장의 행보와 인터뷰를 담은 기사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생각과 기대감이 든다. 다만 운동선수로서 메달리스트의 영예와 IOC 선수위원, 탁구협회장을 거쳐 곧바로 대한체육회장에 선출되는 과정이 이른바 엘리트로서의 경험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학교체육, 사회체육, 전문체육 등 우리나라 체육계의 다층적, 다면적 특성을 아우를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

지난 21 <스포츠조선> 창간특집으로 실린 유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유 회장은 인터뷰에서 '학교체육에 누구보다 진심'이라며 미국의 체육 수업 사례를 들고 있다. 일반학생들이 '방과후 의무적으로 1시간씩 종목을 선택해서 운동'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공교육 안에서 학생 누구나 스포츠 한 종목 배우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서 "우리 학교체육은 학생선수의 운동부도 등한시하고,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활동도 안이하게 생각한다"라며 "미국, 일본처럼 학교에서 누구나 스포츠를 제대로 즐기고 배울 환경은 안 만들어주면서, '최저학력제' 같은 규제만 따라 한다"라고 비판하고, '미국은 운동 잘 하면 하버드대도'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체육특기자가 서울대 주요 학과를 갈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발적 동기부여를 이끄는 교육 시스템'을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학교체육의 일면적 이해와 오류

유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일반학생 체육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의 행정관리와 대학 진학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개선하기 위해 이미 교육감과 협의하려는 실천력을 보인다. 유 회장의 행보를 보며 학교체육에 대한 진심과 실천력을 인정하며 그가 펼쳐갈 체육개혁 청사진을 기대하게 된다. 다만 그가 미국과 일본의 일면적 사례를 일반화하여 마치 우리나라에서 학생선수를 규제만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다.

우선 유 회장의 말처럼 미국 모든 학생이 방과 후에 의무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마도 유 회장이 본 '오바마 재단' 프로그램은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서 실시하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미국은 주마다 독자적으로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일원화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일반화의 위험성이 있다. 미국도 최근에는 고등학교 체육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실시하는 지역도 있다고 전해지며 체육수업을 통한 스포츠 활동이 없는 사례도 전해진다.

그런데도 미국이 스포츠의 천국, 학교체육의 천국인 대표적 국가로 불리는 이유는 방과후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에 있다. 미국의 학교운동부를 관할하는 교직원 중심 단체인 NFHS(National Federation of State High School Associations)에 의하면 미국의 1만9500개 고등학교에서 120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운동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여율에 그저 놀라고 부러울 따름이지만, 중요한 점은 미국의 학교운동부 활동이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과 그 이유를 이해해야만 학교체육 천국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학교체육 천국의 핵심은 교육의 일부인 스포츠 철학

미국의 학교운동부 활동은 철저하게 학교 수업 이후에 실시되며, 우리나라처럼 수업에 빠지면서 운동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학교운동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학업성취도에 도달해야 한다. 일반학생들과 똑같이 학업에 충실하면서도 추가해서 스포츠 활동을 한다는 점이 미국 학교운동부 활성화의 본질적 이유이다. 그들에게 학교운동부 참여를 통한 스포츠 활동은 학교 활동의 충실함에 바탕이 되는 특권(privilege)으로 받아들여진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역대 대통령 대다수가 학교운동부 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국의 학교운동부가 우리나라처럼 '운동만 잘하면' 학업과 상관없이 하버드대도 갈 수 있다는 유 회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미국의 학교운동부에서는 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공부와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미국 사회의 진정한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학교운동부는 지적인 소양과 운동 능력을 고루 갖춘 온전한 의미의 전인교육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핵심은 무엇보다 학교운동부가 교육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학교체육에 대한 오인

또한, 유 회장은 우리나라 학교체육에 대한 다소 비관적 시각을 보이는데, 이는 최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의 노력과 변화의 흐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그는 학교운동부 학생선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교육정책과 현장의 노력 부족 탓으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한 편견은 학교운동부 참여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학교체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오인이라 생각한다.

설령 학교체육 활성화를 이룬다 해도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현재 학교운동부 운영 방식은 학교교육의 교육적 논리가 아닌 전문체육의 경기력 향상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학교 안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교육과는 거리가 먼 전문체육 분야와 체육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반학생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지 이미 오래다. 심지어 운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도 학교운동부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 현실이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들의 노력

사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1인 1스포츠'를 기치로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이 한창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교육부 <2025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전국에 학교스포츠클럽 13만5633팀에서 319만6604명이 활동했다. 아마도 유 회장은 그동안 엘리트체육 분야에만 전문성을 가져왔으므로 우리나라 학교체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정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물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중학교에 비하여 입시 드라이브가 본격 가동되는 고등학교에는 다소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지속 성장세인 것은 분명하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의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기반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는 매학기 체육수업을 실시하고,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든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가입하면서 공부와 '손절'해야 하는 우리나라 학교운동부의 현실적 조건 때문에 학생, 학부모의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

유 회장의 희망처럼 '자발적 동기부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도 학교운동부와 단절된 학교체육 상황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학교운동부가 교육적인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학교교육의 실질적 교육 공간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로 학생선수가 운동에 전념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서 수업을 빠지는 날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학업의 필요성에 대한 최소 조건이라도 마련하기 위한 장치인 '최저학력제'를 없애자는 주장이 진행 중이다.

학교체육 자율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유 회장의 말처럼 학생들이 '자발적 동기부여'를 통해 학교운동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체육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학교운동부가 경기력 향상만이 아닌 교육력 향상을 위한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체육에 대한 일면적 이해와 전문체육 중심의 관점에도 불구하고 유 회장을 통해 우리나라 체육의 발전적 개혁을 기대하는 요구는 지속될 것이다. 체육개혁을 넘어 스포츠 선진화의 성패는 학교체육과 학교운동부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는 노력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편견에서 벗어나 철학과 사고의 유연성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과 일본 등 학교체육이 잘 운영되고 있는 국가들에 관한 심층적 연구와 깊이 있는 논의 과정이 우선이다. 그리하여 학교체육의 방향성에 대한 다층적, 다면적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대한체육회 행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훗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체육 행정에서도 성공한 메달리스트 출신 대한체육회장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 유 회장은 미국과 일본의 학교체육 활성화 사례를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전문체육(엘리트체육)에 선수를 보급하는 곳으로 역할해 온 학교운동부 중심이었으며 따라서 체육회와 협회가 좌우지 하는 체제였고, 미국과 일본은 학교운동부를 관장하는 교육자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단체에서 운동부 대회와 진학을 총괄하며, 우리의 체육회, 협회와 같은 체육협회와 협력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스포츠의 천국'으로 만들게 된 근본적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 학교운동부는 전문체육 중심 사고에서 교육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학교체육 활성화가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참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임.

대한체육회, “선수·지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 앞장서겠다”

대한체육회가 최근 보도된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 관련 논란에 대해 선수들의 권익 침해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체육회는 “선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MBN은 소속팀 전남체육회 지시로 지난해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했다가 국가대표 자격 정지 2년 징계 위기에 처한 러시아 출신 귀화 선수 티모페이 랍신, 알렉산드르 스타로두베츠에 대해 보도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수지도자지원부’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내에 신설했다”며 “해당 부서는 선수 지도자들의 권익 향상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의 국가대표 선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수들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조치로서 해당 연맹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향후 연맹의 의사결정 시 소속 선수들의 자유 의지에 따른 선택과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며 선수들이 불이익받지 않게 나섰다고 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과 지도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보완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프로축구 유소년 축구팀 감독·코치도 노동자…퇴직금, 연차수당 지급해야”

프로축구단에서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로 일한 개인 사업자도 노동자로 보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6단독 오세영 판사는 프로축구단 부산 아이파크의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로 일하다 퇴직한 A씨와 B씨가 축구단을 상대로 연차휴가 수당과 퇴직금 등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8490만여원과 3596만여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HDC스포츠가 운영사로 있는 프로축구단 부산아이파크의 유소년팀에서 각각 14년, 10년간 일했다. 구단 측은 이들을 개인 사업자로 보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해당 축구단 이외 다른 구단과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었고 감독과 코치 업무 외에도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구단 측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구단 규정이나 계약을 위반하면 벌금 100만원을 내도록 한 계약 조항도 이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자로 일한 근거가 됐다. A씨와 B씨는 외부 일정이 없을 때는 구단 사무실에 9시 전까지 출근해 오후 6시까지 일하면서 외부 출장을 갈 때는 구단 승인을 받았다.

미사용 연차수당과 관련해 구단 측은 두 사람이 근무 기간에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유급휴가를 이미 사용하여 그에 관한 권리가 소멸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며 “‘근태 관리’를 소홀히 해 원고들의 유급휴가 사용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는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휴수당은 두 사람이 정해진 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해 매월 임금을 받은 점에 비춰 이미 받았다고 판단했다.

장재원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자로 일을 시키고 개인 사업자로 위장시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장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이런 위장 프리랜서 계약 관행이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포츠계 파워1’ 최초 여성 IOC 위원장, 코번트리는 누구?

짐바브웨의 커스티 코번트리(41)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최초의 여성 및 아프리카 출신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코번트리의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번트리는 짐바브웨의 ‘국민 영웅’으로 불린 수영 선수이자 짐바브웨의 장관이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200m 배영에서 금메달을 땀으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할 때까지 총 7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는 아프리카 선수 중 가장 많은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여성 수영 선수로서 최고의 기량과 화려한 이력을 지녔지만,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인 짐바브웨 국가에서 장관직을 맡으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코번트리는 짐바브웨의 청소년스포츠 예술 레크리에이션부 장관을 맡고 있다.

2004년 아테네에서 3개의 메달을 목에 건 후, 독재자로 비난받은 로버트 무가베 전 짐바브웨 대통령은 코번트리를 “황금의 소녀”라고 부르며 국민 영웅으로 추켜세웠다. 2008년 베이징에서 4개의 메달을 추가한 후 무가베로부터 보상으로 10만달러를 받았다. 당시 짐바브웨 국민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코번트리가 보상금을 받은 것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무가베는 37년 동안 집권하다 2017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됐다. 짐바브웨를 영국 식민주의에서 해방시키고, 소수 백인의 통치로부터 해방한 영웅으로 한때 칭송받았지만, 장기 집권 기간 부패와 집단학살, 백인에 대한 인종차별 등으로 ‘독재자’로 불렸다.

코번트리는 무가베가 쿠데타로 쫓겨난 이후 현 대통령인 에머슨 음낭가과 행정부에서 장관이 됐다. 음낭가과는 무가베 정권에서 부통령을 지냈기에, 인권 단체들은 그가 무가베의 억압적 정책을 계승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AP통신은 그가 젊고 정치적 경험이 거의 없었기에 놀라운 일이었지만, 코번트리가 백인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코번트리는 2023년 같은 부서 장관으로 재임명됐다.

코번트리는 20일(현지시간) 그리스 코스타 나바리노에서 위원장 선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비판에 대해 “내 나라와 관련해, 내부에서 변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IOC위원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장관직에서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또한 코번트리가 스포츠 담당 부처의 장관직 수행 능력에 대한 비판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짐바브웨는 2020년부터 아프리카 축구연맹에 의해 국가대표팀 경기를 개최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안전 기준에 맞는 경기장이 없다는 이유였다. 코번트리는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를 고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가디언은 코번트리가 고국에서 익힌 정치적 기술이 IOC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평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 기간에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된 코번트리는 전임 토마스 바흐 위원장의 후임자로 빠르게 부상했다.

이날 위원장 선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번트리는 “나는 스무살부터 높은 지위에 있는 어려운 남자들을 상대해왔다. 의사소통이 핵심이라는 것을 배웠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이번 결과는 IOC가 진정으로 글로벌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조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밝혔다.

여자 육상 경기서 10초 차이로 압도적 1등한 트랜스젠더... 男 성기에 수염까지

미국 오리건주에서 열린 여자 고등학교 육상 경기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우승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9일 포틀랜드 고등학생 리그 챔피언십에서 맥대니얼 고등학교의 에이든 갤러거가 여자 200m와 400m 경기에서 모두 우승했다.

갤러거는 키 180cm, 체중 약 70kg으로, 400m 경기에서 57.62초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시즌 기록을 세웠다. 이는 1분 5.72초로 2위를 차지한 키날리 수판통보다 거의 10초 앞선 기록이었다.

갤러거는 또한 200m 종목에서도 시즌 기록인 25.76초를 세우며, 2위 선수보다 1.5초 빠른 기록으로 우승했다.

이 같은 결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여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갤러거는 2023년 고등학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을 계획이라며 "지금 당장은 수염이 많아지는 등 더 남성스러워지고 있지만 그런 건 원치 않는다"고 고백한 바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수영 선수 출신인 라일리 게인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또 다른 날, 또 다른 남자 선수가 여자 스포츠를 지배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게인즈는 "갤러거가 시즌 기록을 세우고 가장 빠른 여자 선수보다 7초 이상 앞섰다"며 "그는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의 부모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갤러거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가 멈추기를 바라며 내 정직성을 의심할 때에도 나는 계속 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여에 대한 논쟁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몇 년간 여러 주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 운동선수들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법안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인권 단체들은 이를 차별적인 조치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문제는 단순히 스포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성 정체성과 관련된 복잡한 윤리적, 법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간 스포츠 소식

"죽으려다가 참아"...서울시체육회 '언어폭력' 가해자 징계 사유 해당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8_0003102517

국민체육진흥공단, 2025 스포츠 계정 모태펀드 운용사 모집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244103i>

“풋살장 사고 막자”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46곳 특별점검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7890900&code=61121111&cp=nv>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민간 보조금 '절반 이상'... 효율성 논란

<https://sports.donga.com/region/article/all/20250324/131267541/1>

특혜 채용 의혹 안동시체육회, 임원진 잇단 사의 표명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407470002361?did=NA>

양산 '황산공원' 체육인들로 북적... '핫플레이스' 등극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966>

‘개인정보 유출·보조금 전용 속내’ ... 안동시체육회 ‘절체절명’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3241033548515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대전시의회 조원희 의장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에 앞장설 것"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4224>

“지방체육 위해 스포츠개혁 TF팀 운영할 것”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456414>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